

<편집 코너>

이번 주 호가 늦게 발송되어서 죄송합니다. 한국 방문을 마치고 되돌아가기 전날 "새시대 교수법" 송신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하고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 와서 보냅니다. 외부에서 "bulk mail"을 보내는 기술을 아직 다 익히지 못해서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면 두 손 바짝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조금 더 공부하여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여기 저기 방문하면서 교육현실을 듣고 보고하니 미국에 떠도는 어떤 우스갯소리가 기억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 이야기를 약간 각색하여 이번 호에 실어봅니다.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십시오.

조벽 드림

\*\*\*\*\*

새시대 교수법 155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/ 조벽

\*\*\*\*\*

If you want to avoid criticism, say nothing, do nothing, be nothing.

-----

우스갯소리 2

어떤 사람이 열기구(hot air balloon)를 타고 공중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.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던 중에 발아래 걸어가는 사람 한 명을 발견하고 고도를 낮춘 다음 큰소리로 물었습니다.

"여보시오, 뭐 좀 하나 물어봅시다. 나는 한 시간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길을 잃어버려 큰일났소. 내가 도대체 어디에 와있습니까?"

걸어가던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.

"당신은 지금 해발 20m에 떠 있으며 위도 37.5도와 경도 127도에 와 있습니다."

"혹시 교수님이 아니세요? 맞죠?!"

"네, 그렇습니다만..."

열기구엔 탄 남자는 교수에게 화를 덜컥 내면서 큰소리를 질렀습니다.

"내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도대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! [역시 이론은 밝아도 현실문제풀이엔 강통이라니까.] 교수님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만 했잖아요."

이에 교수는 대답을 했습니다.

"아, 교육부 장관님이군요. 맞죠?!"

"예, 그렇습니다만... 어떻게 아셨나요?"

"장관님께서서는 허풍으로 높은 데까지 올라갔으며, 그저 바람 따라 이리저리 왔다갔다하고 있잖아요. 지킬 수 없는 약속은 딱 해놓고, 밑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네요. 그리고 지금 자신이 잘못하여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건만 갑자기 교육자 탓을 하시는 걸 보아 교육부장관님이 틀림없지요."

© 조벽, 2002

\*\*\*\*\*

이전 발간물은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.

<http://www.me.mtu.edu/~peckcho/korean.htm>

이 무료 간행물을 직접 받아 보시기 원하시면 subscribe teachwell-1 을 적어 peckcho@mtu.edu로 보내시면 자동 가입됩니다.

가입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unsubscribe teachwell-1 을 적어 peckcho@mtu.edu로 보내시면 됩니다.

다른 사항은 조 벽 교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peckcho@mtu.edu 전화: 미국(906) 487-2891 팩스: (906) 487-2822

\*\*\*\*\*